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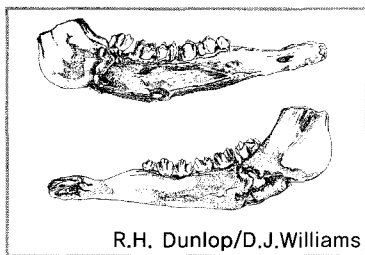
# 수의학의 기원과 야생동물의 가축화

천명선 / (주)동아시아이언스 연구원

고생물의 화석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증거들로만 보더라도 질병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인류의 시작, 아니 생명의 시작과 더불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의 화석은 약 5억년 전의 것으로 최초의 이 병원균은 그램 양성 세균으로 스포어를 형성하는 세균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3억5천년 전으로 추정되는 조개류 생물의 기생생물, 2억년 전의 공룡 화석에서 발견되는 만성 관절염이나 양성 골종양의 흔적들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를 비롯한 고 인류의 화석에서 역시 뼈의 질환과 소아마비 등의 질병이 존재했음이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홍적세 중기부터 후기에 걸친 빙하기에 생존한 매머드의 윗턱뼈에서 방선균류(Actinomycete)에 의한 골막염, 빙하기 이후의 말의 치아에서 발견된 카리에스의 흔적들도 보고 되었다.

그렇다면 인류의 시작과 함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에 대한 치료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인 프랑스의 트로와 프레르(Le Trois Frere)의 동굴에서 이 곳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순록의 뼈가 발견되었다. (그림1) 이 순록의

아래턱뼈는 골절로 인한 심한 골수염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윗턱뼈의 골절이 치유되고 있었던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상처는 적어도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지 않았다면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기간이다. 그렇다면 이 동물이 선사시대 사람들에 의해 어떤 형태의 보살핌을 받은 것을 아닐까?



R.H. Dunlop/D.J. Williams

그림 1. 트로와 프레르(Le Trois Frere)의 네안데르탈인의 동굴에서 발견된 순록의 아래턱뼈 삽화 : 심한 골수염의 흔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수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시점은 인류가 농경과 축산이라는 형태를 통해 정착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던 지금으로부터 만년 정도 이전의 시기이다. 물론 동물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는

1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자가 치료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개는 상처가 나면 상처를 핥고 여우는 목욕을 해서 몸에 붙은 파리를 제거한다. 근세까지 성행했던 치료법인 방혈술이 하마의 자가 치료행위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림 2. 크로마뇽(Cro-Magnon)인의 벽화 (프랑스, 후기구석기)

신석기 이전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그림2)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묘사는 많은 사냥감을 위한 기원의 의미라거나, 어린 세대를 위한 교육용, 또 인간의 순수한 예술행위 그 자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유적들은 문서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류가 언제부터 동물들을 돌보고 이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는가를, 즉 축산과 수의의 시작을 논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인류

가 야생동물을 '가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택하고 길들였는가와 같은 질문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동물의 뼈와 치아의 크기의 변화, 사지 골격의 형태, 두개골의 크기, 뿔의 형태 등 가축화와 더불어 일어난 모든 변화들이 자세히 조사된다. 이 이외에도 암석에 그려진 동물의 그림, 동물의 미이라 등도 역시 연구의 대상이다. 이런 연구는 '동물고고학(Zooarchaeology)'라는 약간은 생소한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동물학적 가축화 연구(zoological domestication research)'를 통해서 동물이 가축화를 통해 어떤 행태와 신체적 능력 등의 변화를 겪었는지 야생동물과 가축화된 동물을 비교하기도 한다.

야생동물의 가축화(domestication)을 통해 인류는 동물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제 가축은 인간의 보호 하에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육'되기 때문이다. 야생상태에서는 살아남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선천적 기형을 지닌 동물들이 인간의 보호 속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도 있다. 인간의 필요와 기호에 따라 크기, 털 색, 유량이나 지방의 양 같은 생리적인 특성마저도 영향을 받았다. 수컷 가축들은 좋은 고기를 위해 또 다루기 편하도록 거세를 당했다.

동물들은 간헐 지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영양부족이나 자연생태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질병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가축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병원체와 맞서게 되었다.

오늘날 흔히 보는 가축들의 가축화 시점이 모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오래된 가축으로 '개'를 꼽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없다. 기원전 약 14000년 전의 한 크로마뇽인의 무덤유적에서 사람과 함께 매장된 늑대(개)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이런 증거로 미루어 이미 사냥에 쓰이는 개의 가축화는 구석기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연구에서 개의 기원이 동아시아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